



프로필

그는 46년간(1913-1959) 번역 활동에 임했으며, 1940년 번역한 부동화의 작품『飄』는 독자들의 마음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문예사회단체, 문학번역, 편집, 교육가, 작가 등 신분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는 중국 현대문학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 중국 현대문학과 문화교류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인물선정 및 자료출처

인물선정:

『중국번역가연구(中國翻譯家研究)』근대편

자료출처:

<https://baike.baidu.com/item/%E5%82%85%E4%B8%9C%E5%8D%8E/10969044?fr=aladdin>

21. 傅東華

(1893-1971) 교육가, 번역가

주요이력

본래 성씨는 황(黃)씨였으나, 외삼촌의 성을 따라 부(傅)씨로 개명하였다. 필명은 오실(伍實)이다. 1912년 상해남양공학중학부를 졸업했으며, 그 다음해에 중화서국에서 번역원으로 활동하면서 단편 소설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1914년부터, 동양 대학교, 북경평민대학 부속고등학교, 북경고등사범대학교 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주요약력

1920년 북경의 문학연구회 가입,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번역원 역임
1932년 복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취임
1935년 제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취임
1936년 문예가협회 조직, 『구국일보(救亡日報)』 편집위원회 참여
1942년 『동남월간(東南月刊)』 주 편집장, 다음 해에 상해에서 번역과 어문학 연구
1949년 건국 이후 중국 문자개혁위원회 연구원 역임
『사해(辭海)』 편집위원회 위원장 역임



22. 林語堂

(1895-1976) 번역가, 작가, 언어학자

프로필

임어당은 복건성 출신으로 본명인 화락(和樂)에서 옥당(玉堂)으로 개명하였고, 다시 어당(語堂)으로 개명하였다. 그는 중국 현대의 저명한 작가이자 학자이며 번역가이고 언어학자이기도 하다.



인물선정 및 자료출처

인물선정:

『중국번역가연구(中國翻譯家研究)』근대편

자료출처:

<https://baike.baidu.com/item/%E6%9E%97%E8%AF%AD%E5%A0%82/384149?fr=laddin>

주요이력

어린 시절 미국과, 독일에서 유학을 하였고, 하버드대학교 문학석사와, 라이프치히 대학교 언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청화대학교, 북경대학교, 하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다. 1954년에는 싱가포르의 남양대학교의 총장직을 맡았다. 1940 년과 1950 년 두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論語』, 『人間世』, 『宇宙風』 등 간행물을 창간하기도 했다. 1967년에는 홍콩중문대학교 연구교수로 취임하여 『임어당당대한영사전(林語堂當代漢英詞典)』의 편집을 주도하였다.

주요작품

- 1919 년 하버드대학교 문학과 입학
- 1923 년 귀국 후 북경대학교 교수, 북경여자사범대학교 교무장 및 영문과 주임 역임
- 1925 년 교육부 소속 『국어 로마자 병음연구회』 위원 위촉
- 1926 년 하문대학교 문학대학원장 역임
- 1929 년 중국연구원 사학특약 연구원 역임
- 1935 년 『宇宙風』 간행물 발간
- 1952 년 미국에서 『天風』잡지 발간
- 1967 년 홍콩중문대학교 연구교수 취임
- 1972 년 『임어당 당대 한영사전(林語堂當代漢英詞典)』 정식 출판
- 1976 년 80 세의 나이로 홍콩에서 사망



23. 茅盾

(1896-1981) 작가, 번역가

프로필

현대 중국 최고의 장편소설 작가로 평가되는 모순은 1896년 절강성에서 태어났다. '모순'은 1927년 9월 『환멸(幻滅)』을 발표할 때 최초로 사용한 필명이다. 1916년 베이징대학 예과를 수료한 후 1921년 '사실주의 문학과 인생을 위한 문학'을 이념으로 표방한 '문학연구회'의 결성에 참여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글들과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문학 이론들을 발표했다.



인물선정 및 자료출처

인물선정:

『중국번역가연구(中國翻譯家研究)』근대편

자료출처:

<https://baike.baidu.com/item/%E8%8C%85%E7%9B%BE/312620?fr=aladdin>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92509&cid=60611&categoryId=60611>

주요이력

1921년 문필활동과 더불어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그 후에도 정치활동과 문학 활동을 병행하였는데 『식(蝕)』, 『무지개』, 『자야』, 『부식(腐蝕)』, 『서리 내린 붉은 잎은 이월달의 꽃과 같구나』 등의 작품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1949년 중국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에는 '중화 전국 문학예술가협회'의 부주석과 '중화 전국 문학공작자협회'의 주석을 맡았다. 1966년 문화 대혁명으로 문화부 장관직에서 해임된 후 1976년 4인방이 몰락할 때까지의 기간에는 확인된 공식 활동이 없다.

주요약력

1913년 북경대학교 예과 입학

1916년 졸업 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편집 업무 담당

1921년 '문학연구회' 결성 참여

1923년 『소설월보(小說月報)』 편집업무에서 상무인서관 국문부 업무로 전환

1931년 『자야(子夜)』 창작 기획

1933년 『자야(子夜)』 정식 출판

1949년 '중화 전국 문학예술가협회' 부주석 및 '중화 전국 문학공작자협회' 주석직 취임

1951년 '세계평화이사회' 이사 역임



프로필

성방오는 중국 현대의 평론가, 교육가이다. 석후생(石厚生) 등의 필명을 사용했다. 호남성 신화(新华) 출신이다. 일본 유학 중 광말약 등과 창조사(創造社)를 만들어 평론가로 활약했다. 그는 중국 무산계급 혁명가이자, 공산주의 전사이며 신문화운동의 중요 대표인, 무산계급 교육가이자 사회활동가, 문학가, 번역가이다.



인물선정 및 자료출처

인물선정:

『중국번역가연구(中國翻譯家研究)』근대편

자료출처:

<https://baike.baidu.com/item/%E6%88%90%E4%BB%BF%E5%90%BE/998634?fr=addin>

14. 成仿吾

(1897-1984) 번역가, 교육자

주요활동

1926 년 3 월 당시 혁명의 중심인 광주에서 광동대학 교수직을 맡았으며, 황포군관학교 병기처 처장 대행을 겸임했다. 대혁명 실패 이후 성방오는 상해, 일본, 유럽으로 망명하여 혁명에 대한 꿈을 유지했고 마르크스주의를 배웠다. 1928 년 8 월,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주요약력

- 1910 년 일본으로 유학
- 1920 년 초 처녀작 『一个流浪人的新年』 창작
- 1922 년 소설 『深林的月夜』 발표
- 1925 년 중국 국민당 가입
- 1927 년 대혁명 실패 이후 유럽 망명
- 1928 년 파리에서 중국 공산당 가입, 혁명 활동 종사
- 1934 년 중앙 홍군을 따라 대장정 참가
- 1947 년 항일전쟁 발발 이후 陕北公學을 설립, 교장으로 취임
- 1950 년 중국인민대학 설립
- 1958 년 산둥대학교 교장 및 중국공산당위원회 서기 겸임
- 1977 년 『대장정 회고록(長征的回憶錄)』 발표
- 1978 년~1983 년 인민대학교 교장 역임
- 1984 년 병세 악화로 사망



프로필

주광잠은 안휘성 안경(安慶)시 동성(桐城)현 출신으로 당대의 저명한 미술학자이자 문예 이론가, 교육가이자 번역가이다. 주요작품으로는『悲劇心理學』, 『文藝心理學』, 『西方美學史』, 『談美』 등이 있다. 그의 이론작품들은 내용이 충실하고 문체가 유창하여 중국 청년들의 필독서로 꼽히기도 한다.



인물선정 및 자료출처

인물선정:
『중국어번역가연구(中國翻譯家研究)』근대편

자료출처:
<https://baike.baidu.com/item/%E6%9C%B1%E5%85%89%E6%BD%9C/2095324?fr=aladdin>

25. 朱光潛

(1897-1986) 미술학자, 번역가

주요이력

1922 년 홍콩대학교 문학대학원을 졸업했다. 1925 년에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로 유학하여 문학, 심리학, 철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33 년 귀국 후, 북경대학교, 사천대학교, 무한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1946 년 이후에는 줄곧 북경대학교 교수직을 맡아 미술학과 서양문학을 주로 가르쳤다.

주요작품

『悲劇心理學』
『文藝心理學』
『西方美學史』
『朱光潛美學文學論文選集』
『談美』
『藝文雜談』
『變態心理學派別』
『美學原理』
『談美書簡』
『無言之美』
『談作文』
『談翻譯』